

제30회 스승의 날 광주·전남 수상자

“학교와 제자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지요”

스승의 날 흥조근정훈장 이병섭 전남공고 교사

“교사들이 학생·학교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는 15일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아 흥조근정훈장을 받는 이병섭(56) 전남공고 교사는...

그는 공부하는 교사다. 불혹을 넘겨 제과·제빵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일본 동경제과학교 양과사, 프랑스 파리 제과제빵학교, 호주 시드니 니르 프르동 블루 제과제빵 전문학교 단기 연수를 마쳤다.



주 최초로 환경교사 모임을 창립했다. ‘무등산사랑초년 환경학교’ 운영위원·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무등산 무돌길(옛 길) 안내지도도 발간했다. 이병섭 교사는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한 뒤 부끄럽지 않은 장년을 맞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보좌주교에 무안출신 옥현진 시몬신부



광주가톨릭대 교수인 옥현진(44) 시몬신부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교황청은 12일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후배들 과외교사 나선 여고생들

광주상일여고 학습봉사단 ‘상일배움터’ 개소

광주상일여고 학생들이 후배 여중생을 위한 학습봉사단을 구성,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상일여고는 13일 오후 ‘상일배움터’ 개소식을 하고 지역 후배 여학생을 위한 배움의 봉사활동을 펴기로 했다.



학교 측은 눈높이에 맞는 개인지도가 가능한 만큼 성적 향상과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취, 사교능력 겸양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상일여고 김진주 교장은 “선배 언니들이 후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학습 이외에도 학교생활, 진학정보 등 다양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한센인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

최미자 소록도병원 간호과장,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

“한센인들과 생활하고 있는 지금이 38년 간호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수여하는 ‘제43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記章)’ 수상자로 선정된 최미자(58) 국립소록도병원 간호과장은 “남은 간호사 생활동안 더 봉사하며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위원회(ICRC)가 크립전쟁 당시 간호에 헌신한 나이팅게일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1912년 제정해 나이트기장의 생일인 5월12일에 맞춰 발표한다. 1972년 마산간호(현 마산대 간호과)를 졸업하고 스무살의 나이에 국립마산결핵병원에서 간호사로 환자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최 과장은 간호사

리는 직업의 보람은 다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5년 전 소록도병원에 자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과장은 “앞으로 정년퇴직 할 때까지 한센인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한국의 최미자 국립소록도병원 과장과 이명희 국립마산병원 간호과장 등 19개국 39명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로 결정됐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향우회: ▲재광 진도군향우회(회장 한기민) 정기총회=28일(토) 오후 3시 30분 광주시 남구 방림초등학교 체육관 017-623-6252. ▲동신고 12회(회장 이종행) 졸업 30주년 사은회=14일(토) 오후 6시 광주 프라도호텔 011-9440-2236. ▲광덕고등학교 8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14일(토) 오후 6시 30분 상무지구 힐스테이트 호텔 062-610-7000.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강탄담 님(여/89세) 故배옥례 님(여/85세) 故김용학 님(남/83세) 故이기석 님(남/81세) 故임재호 님(남/50세)